

광주 인프라 사업 2만3천여개 일자리 창출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회장 이권수)는 26일 광주광역시회 회의실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인프라 투자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연구 용역은 광주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 사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1인당 GRDP, 16개 광역단체 중 15위 시민 62.6% '인프라투자 삶의 질 영향' 응답

■ '광주시 인프라 투자 방향 세미나' 분석

건설 광주시회가 25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시특법' 상 1, 2종 시설물은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물의 비중이 10년 후인 2027년에는 교량 47.5%, 댐 100%, 건축물 23%, 하천 74%, 상·하수도

66.6%, 오벽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할 예정인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원은 광주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인프라 투자 전략 방향과 30개 핵심 인프라 사업군을 제시하면서,

"광주광역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안전 확보,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주거 환경 및 상권 정비, 문화 및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사회적 혼잡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수송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 혼잡도 완화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5.18조원, 5년 동안 연평균 1.04조원) 추진시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GRDP 3.3%p 증가, 가계 소득 5,000억원 증가, 민간 소비 3,500억원 증가, 일자리는 2만 3,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취약 계층(건설 기능인력)의 일자리 보호 및 가계소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광주시민 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민의 62.6%는 인프라 투자가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했다.

지역 인프라 시설의 성능은 56.1점, 안전 수준은 54.1점, 투자 수준은 46.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나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인프라의 안전 수준과 투자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미애 기자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V12 우승기원 상품 판매

광주은행은 2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KIA 타이거즈 V12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승기원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9%에 KIA 성적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4%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KIA 타이거즈가 정규리그 20승 투수 배출 때 0.1%포인트, 포스트시즌 진출 때 0.2%포인트, 한국 시리즈 우승 때 0.2%포인트이다.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8%에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대 0.5%포인트)를 제공한다.

특히 적금의 경우 7연승 이상 기록에 따라 추가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까지 더해 최고 연 2.8%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 청렴문화 확산 'KRC 혁신위원회' 발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25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청렴부조단 기능 강화를 위해 'KRC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혁신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자문위원회'와 'KRC움부조단'을 통합하고 외부고객과의 소통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위원 구성은 법조계,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영진과 감사실에서 공사에 필요한 청렴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외부위원과 의견교환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전예방적이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행복이음패키지' 홍보 농협 광주지역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25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농상생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행복이음패키지' 통장 가입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NH농협생명광주총국, 광주 관내 지역농협 상임이사·전무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품 안내장과 사은품을 나눠주며 '행복이음패키지' 상품을 홍보했다.

농협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행복이음패키지'는 상품 판매 금액에 비례해 농협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이 가입하는 일부상품에 대하여 최대 3.0%의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상품이다.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95%달성

1만1500여ha 접수...전국 평균 달성률 68% 크게 상회

전남도는 지난 20일까지 3개월 동안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1500여ha가 접수돼 계획면적(1만698ha) 대비 95%의 실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과잉생산되는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 타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5만ha를 목표로 정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68%에 그쳤으며, 전남에 이어 경남 82%, 전북 76%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수차례의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각종 교육, 시군 1담당제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집중 홍보해 왔다.

당초 2월28일까지인 사업 신청 기간을 4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농지도 전

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벼 재배 농지로 확대하는 등 7회에 걸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반영되도록 했다.

또 농협, 농·축산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역할을 분담해 타작물 종자 확보와 판로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5월 일부 간척지에서 추가접수를 받으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근산 기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MOU' 체결식에서 국토교통부 이용욱 과장,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환경부 김중률 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수소충전소 확대 맞손

에너지업계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MOU

현대자동차가 정부, 에너지업계와 함께 수소충전소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설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환경부·국토부 관계자와 정진행 현대차 사장,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고재석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훈 SK가스 사장 등 18개 기관과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SPC 설립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의 일

항으로 추진된다.

SPC는 수소충전소의 높은 구축비용을 낮추기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대량발주를 위한 보급사업 체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자의 충전이 용이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C 설립 준비위원회는 5월 중 운영범위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7월 사업모델 확정 및 SPC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11월 최종적으로 SPC 발족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교통사고 줄이기 대안 모색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대책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남본부(본부장 조정조)는 25일 '2018년 상반기 교통유관기관 교통사고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및 지방경찰청과 각 운송사업조합(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등 20개 기관이 참석해 이지역의 낙후된 교통문화수준에 대한 진단과 교통사고줄이기 대책을 제시했다.

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시·도, 경찰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017년 교통사고분석과 운전행태 등 교통문화수준의 실태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전국 평균 수준(1.2명)의 달성을 위한 교통사고줄이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안전공단과 광주시 그리고 전남도는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20%감축을

위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안전 컨설팅을 통한 사람중심 교통환경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며,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중심 교통사고 조사체계 개선, 노인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자사망사고 대책' 계획도 소개했다.

또 운송사업자단체에서는 신규운전자와 위험운전자 상주체험교육 필요성(전업종), 사고율 높은 회사 중점관리와 사망제외화운동 등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조 광주전남본부장은 "오늘 참석한 기관단체의 열의가 한데 모여져 이 지역의 교통문화가 한층 개선돼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해 광주·전남 교통문화지수향상과 지역민들의 사망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요청했다.

/서미애 기자

aT,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병호)는 동남아 지역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제 21회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Asia 2018)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aT는 지난 24일부터 한국관 운영에 돌입, 오는 27일까지 한국 특산물을 홍보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국관에는 45개 한국식품 수출업체

가 참가했다. 최근 현지시장의 소비트렌드인 고품질 건강컨셉에 부응하는 당조고추, 새싹인삼 등 유망품목 데마관을 개설하고, 제주감귤, 경기쌀국수 등 다양한 지역특산물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978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는 약 5만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식품·호텔산업 박람회이다.

/이나라 기자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니연신 부부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칼슘, 고칼슘, 비타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 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간, 셀레늄(Se)
- 두뇌 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 주문 채 | 전국 어디서든 1577-0426 소정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